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사회가 주목하는 투자상품

혼합형펀드의 현재와 미래

혼합형펀드는 채권 또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율이 60% 미만인 펀드를 말한다. 혼합형펀드는 주식과 채권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혼합형펀드의 운영방법과 활용성, 미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혼합형펀드(Balanced Fund)란?

혼합형펀드란 투자자산의 일부는 주식에, 나머지는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이 때 채권의 투자비중이 높으면 채권혼합형펀드라 하고, 주식의 투자비중이 높으면 주식혼합형펀드라고 한다. 그런데 현재 국내 시장에서 운용되는 혼합형펀드는 주식과 채권의 투자비율이 사전에 정해진 패시브(Passive, 방어적) 스타일이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 해외 혼합형펀드(Balance Fund)는 주식과 채권의 투자비율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액티브(Active, 공격형) 스타일의 펀드들도 많다.

해외 펀드에는 다양한 스타일의 혼합형펀드가 있다. 몇 년 전에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소개한 '인컴펀드' '멀티에셋펀드' '자산배분펀드' 등이 대부분 혼합형펀드이다. 이런 펀드들은 대부분 자

본차익보다는 이자나 배당 같은 수익(Income)을 추구하는 펀드이다. 사전에 정해진 자산배분 비율을 유지하는 펀드도 있고 수시로 자산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펀드들도 있다. 국내보다 자본시장의 규모가 크고 다양한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자산운용사들은 다양한 혼합형펀드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혼합형펀드가 단순한 구조의 패시브 스타일로 운용된 데는 국내 금융시장 상황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혼합형펀드가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 보니 상품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데 운용사나 판매사의 관심이 적었다. 또한 고성장이 우리 주식시장은 주식의 기대수익률과 변동성이 높았기 때문에 혼합형펀드 운용자들은 주로 주식 포트폴리오에 집중했다. 하지만 이제는 시장상황이 저성장, 저금리로 변화함에 따라 앞으로 국내 혼합형펀드들도 다양하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혼합형펀드의 과거와 현재

과거 금리가 높던 시절, 보수적인 고객들은 은행 정기예금이나 채권형펀드가 가져다 주는 수익으로도 충분히 만족했다. 또 성장률이 높고 주가가 상승추세를 보이던 시기에는 주식형펀드가 고객들에게 만족스러운 성과를 안겨주었다. 굳이 다른 투자상품에 눈을 돌리지 않아도 되는 호시절이었다.

2000년대만 해도 국내 투자상품 시장에서 혼합형펀드는 천덕꾸러기 신세였다. 고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 판매가 저조하고 성과도 변변치 못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상품도 다양하지 못했고 그저 주식 편입비율에 따라 채권혼합형/주식혼합형 등으로 명맥을 유지했다. 이후 국내 주가지수선물시장이 열리자 아이디어가 있는 자산운용사의 일부 펀드매니저들이 주식포트폴리오에 주가지수 매도포지션을 결합한 시장중립 스타일의 혼합형펀드를 내놓



김춘수

KEB하나은행 투자상품서비스부
포트폴리오 매니저
soo.kim@hanafn.com

- ▶ 학력·자격증
고려대학교 경제학 / 운용전문인력
- ▶ 경력
한국투자신탁 / 우리은행 / 신한중앙회 / 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저
- ▶ 현재 활동
투자상품 개발 및 컨설팅



시장상황이 저성장, 저금리로 변화함에 따라 앞으로 국내 혼합형펀드들도 다양하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도 롱숏펀드, 배당주펀드, 공모주펀드 등 고객들의 눈길을 끄는 혼합형펀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도 했지만 고객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국내 펀드시장 상황은 달라졌다. 시장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주가는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금리, 저성장 경제구조가 고착됨에 따라서 주식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런 금융환경의 변화는 고객들의 자산관리에 변화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금융자산을 정기예금에 묻어두던 보수적인 고객들도 세후 1% 수익률에 불과한 최근 상황에서는 구매력을 유지하기 힘들어졌다. 국내 주식시장 또한 장기간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주식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변화한 시장상황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혼합형펀드이다. 국내에도 고객들의 눈길을 끄는 혼합형펀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2011년에는 국내 주식 롱/숏 전략의 펀드가 좋은 성과를 거뒀다. 또 고배당주와 우선주 투자, 커버드콜 전략을 혼합한 주식혼합형펀드가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을 뛰어넘는 높은 성과를 기록한 경우도 있다. 국내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금리가

하락한 2015년에는 채권혼합형펀드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수익률과 함께 은행권을 중심으로 판매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혼합형펀드의 활용성

혼합형펀드는 기본적으로 주식과 채권으로 자산이 구성되며 원자재나 부동산 등 대안투자 자산을 보조적으로 편입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주식과 채권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들의 선호도와 판매사의 마케팅전략에 따라 주식편입비중이 높은 주식혼합형과 채권편입비중이 높은 채권혼합형펀드가 판매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시장금리가 크게 하락하고 앞으로 배당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배당주에 투자하는 혼합형펀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채권혼합형펀드는 보수적인 고객들이 주식형 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이다. 주식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스러워하는 고객의 경우 우선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채권혼합형펀드로 시작하여 주식투자에 대한 거부감을 덜고 적응기간을 둔 후 점진적으로 주식투자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주식편입비율이 30%인 채권혼합형펀드에 가입한 고객은 투자



혼합형펀드는 주식과 채권에 나누어 투자하고 대안투자를 결합하여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상품으로서 현대 재무이론에서 주창하는 분산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상품이다.

금액의 30%는 주식에, 70%는 채권에 투자한다고 볼 수 있다. 고객들은 주식편입비율이 다른 혼합형펀드를 선택함에 따라 투자 리스크를 조절할 수 있다. **주식시장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면 주식형이나 주식혼합형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식 편입비중이 낮은 채권혼합형펀드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혼합형펀드는 주식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 주식롱/숏전략, 배당주 투자전략, 공모주 투자전략, 커버드콜 전략 등 다양한 전략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장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면 주식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면서 채권투자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혼합형펀드의 미래

국내 혼합형펀드의 미래는 낙관적이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상품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상승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혼합형펀드는 주식과 채권의 균형(Trade-Off) 관계에 의한 분산투자 효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이다. 셋째, 혼합형펀드는 다양한 전략을 결합할 수 있는 확장성이 뛰어난 상품이다. 해외 혼합형펀드들은 이미 이러한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 혼합형펀드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혼합형펀드는 주식과 채권에 나누어 투자하고 대안투자를 결합하여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상품으로서 현대 재무이론에서 주창하는 분산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상품이다.** 경기 상승기에는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식형펀드는 물론 혼합형펀드도 유리하게 되고, 경기 하락기에는 주식시장은 부정적이지만 채권시장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혼합형펀드의 수익률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전통자산 외에 원자재나 부동산 등 대안자산을 결합하여 투자수익률을 보완할 수 있다.

혼합형펀드는 투자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손꼽힌다. 예를 들어 라이프사이클(Life Cycle)펀드는 고객들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주식 투자비중을 줄이는 펀드로 혼합형펀드의 활용성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 아래 국내 혼합형펀드는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단순한 구조에서 배당주 투자나 공모주 투자 등으로 전략을 다양화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 혼합형펀드는 자산구성은 물론 다양한 전략을 결합한 상품이 많아질 것이고, 해외의 경우처럼 패시브 스타일과 함께 액티브 스타일 펀드들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summary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사회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투자상품이 혼합형펀드이다. 혼합형펀드는 주식과 채권에 나누어 투자하고 대안투자를 결합하여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상품으로 손꼽힌다. 기존에 국내 혼합형펀드는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단순한 구조였으나, 최근 배당주 투자나 공모주 투자 등으로 전략을 다양화하고 있다. 앞으로 자산구성은 물론 다양한 전략을 결합한 상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액티브 스타일의 펀드들도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